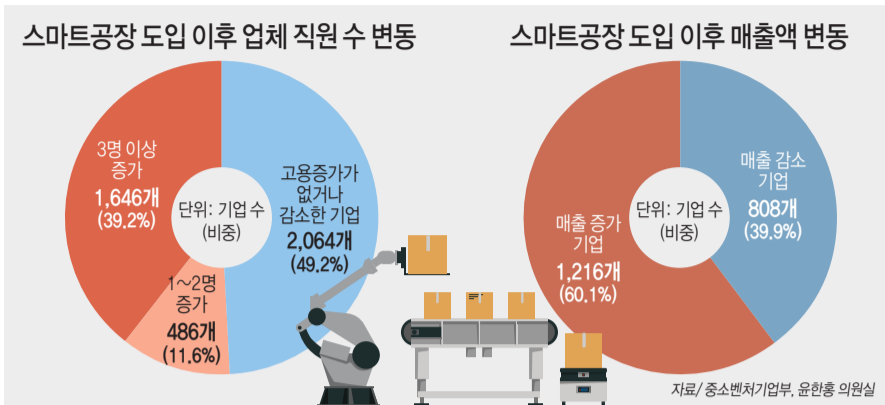


# 스마트공장사업 성과분석 놓고 정부 vs 野 ‘갑론을박’

같은 자료 해석따라 평가 엇갈려  
중기부 “도입 후 평균 3명 고용”  
윤한홍 의원 “기업 절반 고용 ↓  
예산 활용 적정하지 검토해봐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지원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앞서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자료를 통해 스마트공장 도입기업들의 고용이 평균 3명씩 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이 국정감사 기간 중 반박자료를 내놓으면서다.

윤한홍 의원은 중기부에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성과분석 관련 자료를 별도로 요청해 자체 분석한 결과 사업 참여기업의 절반에 가까운 49.2%의 기업에서 고용이 정체됐거나 오히려 감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고용 효과를 놓고 중기부는 ‘기업당 평균 3명 고용 창출’을, 윤 의원은 ‘2곳 중 1곳은 고용 정체 또는 감소’를 각각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시작한 중기부는 지난해까지 관련 솔루션 공급업체에게 총 3283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5003곳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해 지난 5월 관련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외부기관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의 경우 평균 4.2% 늘어 기업 한 곳당 3명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증가율은 84.9%로 50인 미만(5.9%), 100인 미만(3.2%) 등을 훨씬 능가했다.

다만 가장 고용 창출 효과가 큰 10인 미만 기업은 전체 표본의 8.9%에 그쳤다. 이외에 50인 미만이 52.4%로 가장 많았고, 100인 미만(19.7%), 100인 이상(16.9%) 순이었다.

그런데 윤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내놓은 결과를 살펴보면 중기부의 조사 대상 기업(5003곳) 중 4196곳이 실제 설문에 응답했는데 이 가운데 49.2%인 2064개 기업은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에도 고용이 늘지 않았거나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또 1~2명이 증가한 기업도 전체의 11.6%인 486개에 달했다.

같은 자료를 놓고 해석에 따라 ‘평균 3명 고용 vs 기업 절반만 고용 창출’로 나뉜 것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로부터 4196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 후 증가 또는 감소한 고용 현황 자료를 받아 변경 인원수대로 나열한 결과 지원 기업의 절반 가량은 고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인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며 “스마트공장의 고용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 방법이 가장 논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 자료에 따르면 분석 대상 기업 중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이후 699명이 늘어난 기업이 고용 창출 1위를 기록했

다. 반면 459명이 감소한 기업도 있었다. 고용 효과를 본 기업의 경우엔 100명 이상이 43곳, 50명 이상~99명 이하가 90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680곳, 1명 이상~9명 이하가 1319곳이었다.

인원이 변동 없는 기업도 264곳에 달했다. 거꾸로 고용이 감소한 곳은 1명 이상~9명 이하가 1266곳, 10명 이상~49명 이하가 473곳, 50명 이상이 61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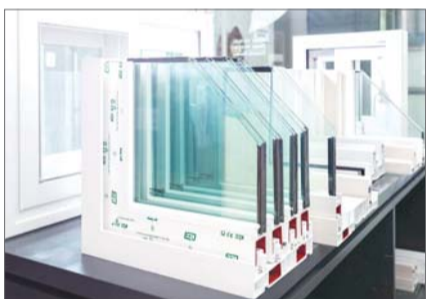
윤 의원은 “고용 감소 뿐만 아니라 매출이 감소한 기업도 응답기업의 39.9%에 달하는 등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일부 기업의 매출 및 고용이 급증한 탓에 전체적인 평균이 높아졌을 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5년간 30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스마트공장 보급 예산이 현실에서 바람직한 예산 활용인지는 심각하게 검토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올해에도 4000개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KCC “창호 교체시 로이유리 업그레이드”

흠씨씨인테리어 구매 고객 대상



로이유리가 적용된 KCC 창호.

KCC는 가을 이사철을 맞아 자사의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인 흠씨씨인테리어를 통해 창호를 교체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로이유리 무상 업그레이드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1월 15일까지 전국 흠씨씨인테리어 매장이나 공식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 신청을 통해 창호를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KB국민카드로 결제시 12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도 가능해 창호 교체를 희망하는 소비자들은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다.

로이유리는 동일한 복층 유리일 때 일반 유리에 비해 약 45% 향상된 단열 성능을 보여준다. 유리 표면에 은금속 층을 코팅해 단열 효과를 최대로 높였기 때문이다. 일반 유리창은 대부분 복층 유리로 유리 두 장 사이에 빈 공간을 뒤대류, 전도, 복사 세 가지 열 전달 경로 중 대류와 전도를 차단해 열의 이동을 막는다.

하지만 유리를 최대한 두껍게 하거나 빈 공간을 진공으로 만들더라도 복사에 의해 열이 전달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는 태양에서 발생한 열이 진공 상태인 우주를 통과해 지구에 도달하는 것과 같은 원리로 전자기파(적외선)가 유리창을 뚫고 열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복사열까지 차단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 낮은 방사율을 뜻하는 로이(Low-E: low-emissivity) 유리다. 로이유리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가시광선은 대부분 안으로 투과시켜 실내를 밝게 유지하면서도 적외선 영역의 복사는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로이유리를 적용하면 겨울에는 안에서 발생한 난방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여름에는 바깥의 열기를 차단하는 등 단열 효과가 커 냉·난방비를 줄일 수 있다.

/김승호 기자

## 김기문, 美 방문해 개성공단 재개 협조 요청

(중기중앙회장)

4개월 만에 개성공단 국제 행보  
아태소위원장 등 만나 재개 설득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또 다시 미국으로 떠난다. 중기중앙회는 김 회장이 오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미주민주참여포럼 후원의 밤 행사에 참석하는 브래드 셔먼 아태소위원장을 만나 개성공단이 국제 제재에서 면제돼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미 의회의 협조를 부탁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6월 11일에도 개성공단 재개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미 하원을 방문, 브래드 셔먼 위원장을 만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바 있다. 아울러 14일(현지시간)엔 세계한인무역협회(OKTA)가 개최하는 제 24회 한인경제인대회에 초청 받아 참석한다.

올해 대회에는 세계한인무역협회 회원들과 유관기관 등 1000여명 넘는 기업인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외 한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수출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회도 진행한다. 중기중앙회는 해외 한인 기업들과 국내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16일(현지시간)에는 니나 하치치안 LA시 국제부문 부시장과 간담을 갖고, 한국 중소기업의 미국 투자 및 교역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교환한다.

중기중앙회는 미국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원하는 기업들이 느끼는 애로를 전달하고 LA시와 교류하며 소통할 수 있는 채널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미국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11개사를 파견해 라스베이거스와 LA에서 현지 바이어와 매칭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라스베이거스에서는 OKTA와 협력해 상담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

## 공영쇼핑, 오늘·15일 ‘인삼대축제’ 특집

공영쇼핑은 인삼 수확기를 맞아 11월 15일 이틀간 ‘2019 대한민국 인삼대축제’ 특집 방송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특집 방송에선 총 9개 지역의 햇수삼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번 특집 방송에서는 ▲강화·경기동부·안성 수삼(11일 오전 11시 30분) ▲강원·충북 수삼(11일 오후 5시 40분) ▲서산·금산 수삼(15일 낮 12시 40분)

▲전북·풍기 수삼(15일 오후 4시 35분)을 각각 선보인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5만6900원부터 7만2900원까지다.

9개 지역의 수삼 모두 10월 이후 수확한 햇수삼이다. 수삼은 가공하기 전의 인삼으로 보관기간이 짧아 수확기에만 즐길 수 있다. 방송에선 한식전문가인 신호섭 셰프가 출연해 튀김, 샐러드, 담금주 등 다양한 수삼 활용법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녹·부식 걱정 뚫... 스테인리스 전기 온수기

귀뚜라미 용량별·벽걸이형 등 6종  
온수 공급력 우수하고 내구성 강화

귀뚜라미는 스테인리스 전기온수기 신제품 6종을 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온수탱크 전체를 세균과 녹, 부식에 강한 고품질 스테인리스 재질로 제작해 온수의 청결성과 제품의 내구성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온수탱크 주변으로는 단열성이 우수한 고밀도 폴리우레탄폼을 촘촘하게 삽입해 보온성을 높였다.

온수탱크 용량도 1 l, 30 l, 50 l로 다양화하고 용량별로 벽걸이형(하향식)과 바닥설치형(상향식) 모델을 모두 출시해 사용 용도와 설치환경에 맞춰 자유롭게 모델을 선정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직접 가열식 제품으로 온수 공



급 능력이 뛰어나고 콤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도가 높으며 수도관과 콘센트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설치가 간편하다.

이상 과열에 의한 화재나 급격한 온수탱크 내압 상승으로 인한 제품파손을 방지하는 자동 온도 조절 장치와 안전 밸브 등 안전장치까지 든든하게 갖추고 있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20만~30만원 대다.

/김승호 기자

## 시멘트협회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

한국시멘트협회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시멘트 제품(KS L)의 전문적·체계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는 ‘품목별 품질관리단체’로 지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은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과 건설업계의 더욱 다양해진 품질 요구에 시멘트협회가 주도해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지속해 나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시멘트 제품에 대한 품목별 품질관리단체 지정으로 한국시멘트협회는 KS인증심사 지원 및 단체인증사업을 통한 품질관리 전문성 확대 등이 가능해져 고객 신뢰 확대와 시멘트산업 위상 제고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